

##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에 관한 연구

여은영\* · 김화수\*\*

**요약** 본 연구는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 특성을 관용어 이해 과제와 관용어 반응시간, 관용어 의미해석 오류유형으로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주 대안학교 소속 북한 이주 청소년 10명과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소속 G실용음악 학원에 다니는 일반청소년 10명으로 총 2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관용어를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5문항 및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5문항을 포함해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관용어 한 문항에 포함 된 그림 자료는 각 세 가지 그림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는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는 일반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용어 반응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 명칭 포함 관용어와 일상 명칭 포함 관용어에서 북한 이주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낮은 이해능력을 보였다.

북한 이주 청소년을 남한 정착 기간 24개월 이상과 남한 정착 기간 24개월 미만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관용어 이해에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용어 반응시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표본수가 작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관용어 의미해석 오류유형 비교에서 북한 이주 청소년의 경우 축자적 의미해석 오류가 많았으며 일반 청소년은 축자적 의미해석보다 그 외 의미해석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 이주 청소년은 관용어를 낯설게 느끼며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소한 어휘와 문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축자적으로 의미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북한 이주 청소년들의 관용어 이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요어** 북한 이주 청소년, 관용어, 관용어 반응시간

\* 느티나무 건강발달지원센터, 언어치료학, tnffkaal@hanmail.net

\*\* 대구대, 언어치료학, whasoolang@hanmail.net(교신저자)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는 다문화 인구의 유입이 증가 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 매년 급증하고 있는 북한 이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연간 1,000명을 넘어 2,000여 명의 북한 이주가 남하하고 있으며, 2011년 한 해에 남하한 북한이탈주민만 약 2700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직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을 떠돌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까지 포함한다면 북한 이주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2000년 이후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입국자가 증가 하면서 북한 이주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논의화 되고 있다. 북한 이주 청소년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5조 1항에 근거하여 14~24세에 해당하는 북한 이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 계층이 포함된 10대와 20대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1990년대에 태어나 영유아기를 보내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하였고 학령기에는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 하였다(이연주, 2010). 그런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하여 남한에 새롭게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질적인 남한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기피문제이다.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6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단절되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질화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남한어에 내재된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남한어를 사용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이주 성인보다 북한 이주 청소년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더 쉽게 적응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들 역시 이주 초기에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에 노출 되었을 때 쉽게 적응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시기는 환경

의 변화에 민감하고 감정적이고 자아 통제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 가치판단 기준과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기이므로 심리적 충격과 혼란은 성인보다 심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요구된다. 북한 이주 청소년은 다른 다문화 주민과 마찬가지로 남한어를 낯설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지금까지 북한 이주민의 언어 적응교육은 어휘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일상 언어사용의 기본적인 목적이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남한 사회를 이해해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예절이나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담화표현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주 청소년들의 관용어 이해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언어적 적응을 도울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관용어는 기본적인 언어적 지식만으로 알 수 없는 상위적 언어 표현이며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다(박영순, 1985). 관용어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관용어를 통해 언어적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언어생활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남한어 적응과정에서 언어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주 청소년들이 관용어습득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남한사회의 정서와 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적응해 나감으로써 부적응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주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정서를 담은 관용어 사용에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 이주 청소년들의 언어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들의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 I.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1.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관용어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 1.1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신체명칭이 포함된 관용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1.2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일상명칭이 포함된 관용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관용어 반응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 II. 남한거주 24개월 미만의 북한 이주 청소년과 남한거주 24개월 이상의 북한 이주 청소년 간 관용어 이해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1. 남한거주 24개월 미만의 북한 이주 청소년과 남한거주 24개월 이상의 북한 이주 청소년 간 관용어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 1.1 남한거주 24개월 미만의 북한 이주 청소년과 남한거주 24개월 이상의 북한 이주 청소년 간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1.2 남한거주 24개월 미만의 북한 이주 청소년과 남한거주 24개월 이상의 북한 이주 청소년 간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남한거주 24개월 미만의 북한 이주 청소년과 남한거주 24개월 이상의 북한 이주 청소년 간 관용어 반응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 III.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관용어 의미해석에 대한 오류유형은 어떠한가?

## 2. 선행 연구

우리 사회에 새터민 청소년의 수가 점차 증가 하면서 이들의 부적응 문제

가 논의화되고 있다. 새터민 청소년들의 부적응의 이유로는 탈북과정에서의 학습공백기와 심리적·정서적 상처 및 남한과의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남북의 언어가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는 언어가 부적응의 원인 중 낮은 비율을 차지 할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정경일(2001)에 의하면 새터민 청소년에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야를 묻는 질문에 90%가 ‘언어생활’이라고 답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새터민 청소년은 어휘, 어투, 말의 속도 등의 차이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하였다. 이연주(2010)에서도 새터민 청소년이 남북한 언어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음이나 억양의 문제 외에 문법, 어휘, 의미 측면 등에서도 언어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새터민의 언어문제에 대해 홍덕기(2001)는 용어와 의미의 차이, 어투와 억양, 외래어, 영어, 한자 등 언어이질화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장애 및 이로 인한 대인기피증 현상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언어문제는 단순히 언어사용의 어려움을 넘어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그들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장한님(2012)은 언어 적응의 문제는 새터민에게 실질적인 의사소통 문제와 더불어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불안으로까지 확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탈북 과정 중에 대부분이 제3국을 거치므로 남한어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1990년대의 남한이주 초기 새터민들에 비해 남한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터민들에게 남한어는 적응노력이 요구되는 낯선 언어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새터민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한어에 대한 적응이 빠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한나(2010)에 의하면 어린 시절 남한사회에 온 새터민 청소년은 정착 초기에 언어상의 어려움을 약간 겪기는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타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연령이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겪는 어려움 일 것이다. 우리사회의 수많은 외래어와 신조어, 사회문화적 배경을 담은

담화상황은 늘 새터민 청소년들로 하여금 긴장과 불안 속에 있게 한다. 우리 사회가 새터민 청소년의 이러한 언어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 특성을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북한 이주 청소년 대안학교 소속 북한 이주 청소년 10명과 인문계 고등학교 소속 일반청소년 10명으로 총 20명이 본 연구에 참여 하였다.

북한 이주 청소년은 서울특별시 Y구 소재 H 북한 이주 교회에서 북한 이주 청소년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10명에게 의뢰하였다. 북한 이주 청소년의 경우, 북한 이탈 이후 오랜 기간 학업의 중단으로 인해 학업격차와 연령차가 초래되어 남한의 정규학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연령과 학년에 관계 없이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 이주 청소년 또한 연령과 학년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다. 연구에 참여한 북한 이주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선정 하였다.

첫째, H 교회 고등부 담당 교사로부터 언어 및 심각한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고 지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북한 이주 청소년.

둘째, H 교회 고등부 담당 교사로부터 학업의 중단 상태가 아닌 북한 이주 대안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북한 이주 청소년.

셋째, 보호자 및 북한 이주 청소년 자신이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북한 이주 청소년으로 하였다.

일반 청소년은 경남 김해시 소재 G실용음악 학원에 다니며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10명에게 의뢰 하였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남한

의 정규교육체계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연령과 학년이 일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일반 청소년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G실용음악 학원장으로부터 언어 및 심각한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고 지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일반 청소년.

둘째, 보호자 및 일반 청소년 자신이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일반 청소년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배경 정보는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북한 이주 청소년의 배경 정보

이름	성별	나이(세)	학력	거주기간(년;개월)
1	여	19	고등학교2학년	4;6
2	여	19	고등학교3학년	2;4
3	남	19	고등학교2학년	2;6
4	남	19	고등학교2학년	2;5
5	여	19	고등학교2학년	4;0
6	여	19	고등학교3학년	1;1
7	여	18	고등학교1학년	1;2
8	여	18	고등학교1학년	1;2
9	여	18	고등학교1학년	1;7
10	여	19	고등학교2학년	1;2

표 2. 일반 청소년의 배경정보

이름	성별	나이(세)	학력	거주지
1	남	17	고등학교1학년	경남 김해
2	여	17	고등학교1학년	경남 김해
3	여	17	고등학교1학년	경남 김해
4	여	17	고등학교1학년	경남 김해
5	남	18	고등학교2학년	경남 김해
6	남	18	고등학교2학년	경남 김해
7	남	18	고등학교2학년	경남 김해
8	남	18	고등학교2학년	경남 김해
9	남	18	고등학교2학년	경남 김해
10	남	18	고등학교2학년	경남 김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와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0)

변인	구분	n(%)
집단구분	북한 이주 청소년	10(50.0)
	일반 청소년	10(50.0)
성별	남자	9(45.0)
	여자	11(55.0)
연령	17세	4(20.0)
	18세	9(45.0)
	19세	7(35.0)
학년	고1	7(35.0)
	고2	11(55.0)
	고3	2(10.0)

\*무응답에 따라 변인마다 n(%)에 차이가 있음.

## 2) 자료 수집 및 연구 도구

### (1) 자료 수집

먼저 북한 이주 청소년 집단의 특성상 연령에 따른 학년을 일치시키지 못하였고 대안학교에서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이수 하고 있는 북한 이주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과제는 H교회의 사무실에서 방해 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실시되었고 과제 수행 전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배경정보를 파악 하였다. 북한 이주 청소년 설문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관용어 과제는 모두 연구자 1인이 실시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는 컴퓨터 모니터를 앞에 두고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된 관용어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나타나는 세 가지의 그림 중에 관용어의 의미와 일치하는 그림을 찾아 번호를 말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정정을 원하는 경우 1회의 정정 기회를 주었다. 일반 청소년은 학원 내 개별적인 공간에서 북한 이주 청소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관용어 목록 및 그림 자료는 외국인을 위한 관용어 책 '살아있는 한국어'(김선정 외, 2011)에서 선정하여 연구자가 직접 그림을 그려 사용하였다. 관용어는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5문항 및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5문항을 포함해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관용어 한 문항에 포함 된 그림 자료는 각 세 가지 그림으로 구성하였다.

## 3) 연구 절차

### (1) 연구기간 및 장소

본 연구는 2012년 9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14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북한 이주 청소년의 연구과제는 H교회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방해 받지 않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북한 이주 청소년과 같은 기간에 실시하였으며 연구과제는 G실용음악학원 내 개별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 (2) 검사방법

본 검사는 2회에 걸쳐 연구대상자를 반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였다. 과제는 실시 전에 다른 연구대상자에게 관용어 목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용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연습과제를 하도록 하였다. 연습과제는 모두 2문항으로 하였다. 첫 번째 연습과제는 '귀가 빠지다'라는 문항으로 첫 번째 귀를 잡고 있는 그림, 두 번째 물에 빠지는 그림, 세 번째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그림으로 구성하였으며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관용어를 연구자가 읽어준 후 답을 번호로 말하게 하였다. 연습과제에서 틀렸을 경우 연구자가 답을 말해주고 틀린 관용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연습과제가 끝나면 두 번째 연습과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귀가 빠지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연구자가 관용어 문장을 읽음과 동시에 북한 이주 청소년이 답을 말할 때 까지를 녹음하여 관용어 반응시간을 기록하였다.

#### 4) 자료 분석

##### (1) 관용어 문항 과제 채점

대상자가 말한 답이 맞는 경우 1점, 틀린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각 세트 당 15점, 두 세트 총점 30점을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 (2) 반응 시간 분석

대상자가 관용어를 듣고 답을 말할 때까지의 반응 시간을 모두 녹음하여 praat으로 분석하였으며 1/100초 단위로 기록하여 문항 당,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였다.

##### (3) 오류 유형 분석

문맥이 제시되지 않은 독립과제 이므로 관용적 표현은 추자적으로 해석한 오류와 그 외의 오류로 나누어 오류 형태를 분석 하였다.

$$\text{오류 비율}(\%) = \frac{\text{오류 형태 별 빈도 수}}{\text{총 오류 수}} \times 100$$

### 5)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차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1)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관용어 이해 차이

주요 변인을 ‘신체명칭이 포함된 관용어’와 ‘일상명칭이 포함된 관용어’로 구분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4.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전체(N=80)	
	M	SD
신체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9.20	14.71
일상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0.75	4.59
관용어 총점	19.95	8.46

주요 변인 별로 살펴보았을 때 일상명칭이 포함된 관용어가 신체명칭이 포함된 관용어보다 이해가 높았고 신체명칭이 포함된 관용어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관용어 이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총점을 그림 1과 같이 그래프로 비교해 보았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총점에서 일반 청소년의 이해가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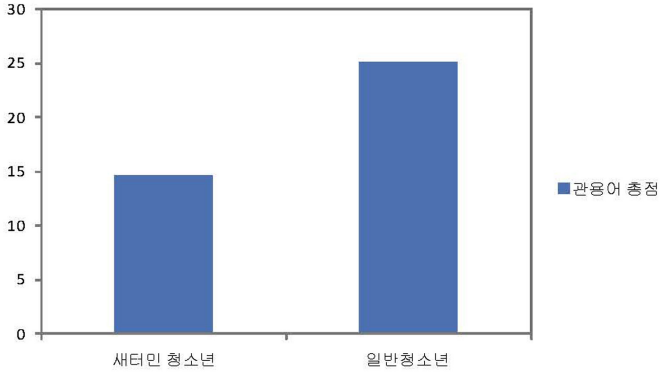


그림 1.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관용어 총점 비교

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에 관용어 이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그 결과,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신체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t=-3.075, p<.01$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 청소년 집단( $M=11.50$ )이 북한 이주 청소년 집단( $M=6.90$ )에 비해 이해 수준이 높았다.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신체 명칭과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차이 비교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 신체 명칭 보다는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표 5.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관용어 이해에 대한 차이

변인	북한 이주 청소년(n=10)		일반 청소년(n=10)		t	p
	M	SD	M	SD		
신체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6.90	4.23	11.50	2.12	-3.075**	.007
일상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7.80	4.76	13.70	1.57	-3.726**	.002
관용어 총점	14.70	8.93	25.20	3.19	-10.50**	.003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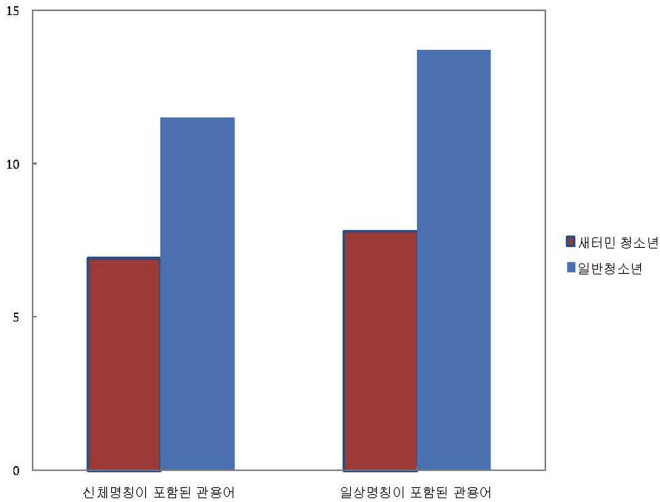


그림 2.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신체 명칭, 일상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차이 비교

고, 신체 명칭과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모두에 이해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반응 시간의 차이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관용어 반응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결과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반응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6.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반응시간의 차이

변인	북한 이주 청소년(n=10)		일반 청소년(n=10)		t	p
	M	SD	M	SD		
반응시간	4.9972	1.39517	4.3047	.98556	1.282	.218

### 3) 북한 이주 청소년의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관용어 이해의 차이

북한 이주 청소년 내에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관용어 이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이주 청소년을 24개월을 기준으로 남한 정착 24개월 미만 5명, 남한 정착 24개월 이상 5명으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정착 기간에 따른 북한 이주 두 집단 간 관용어 이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평균으로 비교 한다면 남한 정착 24개월 미만의 북한 이주 청소년과 24개월 이상의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표 7. 북한 이주 청소년의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관용어 이해의 차이

변인	24개월 미만 정착 (n=5)		24개월 이상 정착 (n=5)		t	p
	M	SD	M	SD		
신체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4.40	3.78	9.40	3.21	-2.254	.055
일상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5.20	4.44	10.40	3.78	-1.994	.082
관용어 총점	9.60	8.20	19.80	6.87	-2.131	.067

### 4) 북한 이주 청소년의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

북한 이주 청소년 내에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관용어 반응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이주 청소년을 24개월을 기준으로 남한 정착 24개월 미만 5명, 남한 정착 24개월 이상 5명으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정착 기간에 따른 북한 이주 두 집단 간 관용어 반응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북한 이주 청소년의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

변인	24개월 미만 정착(n=5)		24개월 이상 정착(n=5)		t	p
	M	SD	M	SD		
반응시간	4.73	1.17	5.26	1.68	-5.79	.580

### 5)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오류유형에 따른 차이

본 연구의 관용어 이해 과제에서는 2가지의 오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문맥과제가 아닌 독립과제이므로 관용적 이해 표현을 축자적으로 해석한 오류와 그 외의 오류 유형이 있다.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오류 유형별 빈도와 비율은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오답 유형별 빈도와 비율

오류 유형	북한 이주 청소년(n=10)	일반 청소년(n=10)
관용적 표현의 축자적 해석오류 비율(%)	109 68.55%	22 52.38%
그 외 오류 비율(%)	50 31.44%	20 47.61%
전체 비율(%)	159 100%	42 100%

관용어 이해 과제에서 두 집단 모두 관용적 표현의 축자적 해석 오류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이주 청소년 집단은 축자적 해석오류와 그 외 해석 오류의 차이가 많이 났으며 관용표현의 축자적 해석 오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일반 청소년은 축자적 해석 오류와 그 외 해석 오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북한 이주 청소년은 관용적 표현의 축자적 해석 오류에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일반 청소년은 그 외 해석 오류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 특성을 분석하여 일반 청소년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15세부터 2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북한 이주 청소년 10명과 일반 청소년 10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관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3의 의미를 가진 관용어에 대해 낯설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단절됨으로 인해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가 담겨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쓰여 오던 관용어의 제3의 의미를 찾고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는 우리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며 학교 교육에서도 관용어 교육은 꼭 필요할 것이다.

관용어의 이해 중에서도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일상 명칭 포함 관용어와 신체 명칭 포함 관용어에 대한 차이에서는 일반 청소년이 북한 이주 청소년보다 관용어 이해 정도가 높았으며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두 집단모두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보다는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에 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 이주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 모두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보다 신체명칭이 포함된 관용어를 어휘자체의 축자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쉬우므로 오류를 더 많이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관용어 반응 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연구에 참여하는 두 집단의 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북한 이주 청소년은 관용어에 나타난 어휘와 표현자체를 낯설게 반응하며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반 청소년은 남한의 학교 교육에서 시험제도에 대한 영향으로 문항마다 아주 신중하게 답을 하는 사례

가 많았다.

셋째, 북한 이주 청소년의 남한 정착 24개월 미만과 24개월 이상의 두 집단 간에는 관용어 이해와 관용어 반응시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정착 24개월을 기준으로 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했을 때는 아주 큰 차이가 났다. 이것은 표본 수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본다면 북한 이주 청소년 마다 개개인의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남한정착 24개월을 기준으로 언어의 적응 기간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관용어 오류 유형 분석에서는 북한 이주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 보다 오류 빈도와 비율이 높았다. 특히 북한 이주 청소년은 축자적 해석 오류가 높았으며 일반 청소년은 그 외 해석 오류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북한 이주 청소년은 어휘 그 자체의 의미 해석에 집중하였고 일반 청소년은 축자적 의미 해석 보다는 또 다른 제3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한 이주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위해 겪는 언어적인 문제가 관용어 이해에도 나타났으며 일반 청소년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북한 이주 청소년들은 생소한 단어와 의미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였으며 관용어의 의미를 축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남한에 정착한 기간에 따른 관용어 이해에서 표본 수가 작아 통계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한 정착 기간에 따라 빠르게 언어적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 이주 청소년들이 의사소통 측면에서 관용어를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그들의 언어적 지식을 높이고 어휘를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표현을 하게한다. 또한 사회상황에서의 적절한 관용어의 사용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관용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교육은 남한 사회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북한 이주 청소년 10명, 일반 청소년 10명, 총 20명으로 대상자의 표본수가 적다. 따라서 이 결과를 모든 북한 이주 청소년의 관용어 이해 특성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남한 정착 기간에 따른 관용어 이해 특성을 더 많은 표본수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 선정 지역이 서울과 경남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북한 이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거주 지역을 통일하지 못하였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관용어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적용하였다. 범주를 넓혀서 속담, 은어, 고사성어, 속어등으로 관용어를 살펴보거나 자발화를 통한 질적 연구 또한 후속 연구자들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2013.04.26 접수, 2013.06.03 수정, 2013.06.28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권기호, 2005,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정아, 2008, 새터민 청소년 이해하기, 젊음의 광장.
- 김명민, 2011,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향, 2006,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 방안, 새국어교육, 76, 141-172.
- 김선정·강현자·김경하·류선영, 2011, 살아 있는 한국어<관용어>, (주)한글파크.
- 김영하, 2010, 다문화사회와 북한 이주 청소년의 교육문제, 윤리교육연구, 21, 223-248
- 김윤나·서보람, 2007, 새터민 아동·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분석, 아동권리연구, 11(1), 121-137.
- 김종국·조아미, 2008,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2), 103-119.

- 김지현, 2012,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경·장경희·김정선·이삼형·이필영·전은진, 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조사, 사회언어학, 19(1), 23-58.
- 김하늬, 2012, 읽기이해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맥유무에 따른 관용어 이해능력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 2003, 남북한 어휘의 이질화 양상, 어문학, 83, 65-91.
- 박영순, 1985, 관용어에 대하여, 국어교육, 1(53).
- 박영준, 2005, 관용어사전, 태학사.
- 변준희, 2010, 남북한 상징어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선·권순희·강보선·양수경·정성훈·정호성·남건우, 2012,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 심 원, 2006,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연희, 2006, 국어 관용어 지도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국어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수경·권순희, 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459-483.
- 오솔샘, 2012, 어휘과제 유형이 한국어 관용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주리·이수연, 2010,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과 대처 경험에 관한 질적사례 연구, 상담학연구, 11(4), 1807-1826.
- 이연주, 2010,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속담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박소영, 2010, 관용어의 친숙도, 성별, 학업성취도가 관용어 이해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466-476.
- 이하나·정동인, 2010,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과정 변화에 따른 탈북 청소년 새로운 적응양상과 교육적 과제: 북한이탈 청소년 P방과후 사례연구, 학생연구 경연대회, 제9집, 덕성여자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흥식, 2007, 새터민의 언어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15(2), 141-161.
- 이희승, 2009,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장미정, 2004, 관용어 지도 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한님, 2012, 새터민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미, 2008, 새터민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화행교육 방안 연구: 거절하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9, 111-131.
- 정경일, 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적응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 조생연, 2004, 신체관용어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송아, 201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관용어 이해 능력 비교분석,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덕기, 2001, 탈북 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숙, 2009,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과 적응 방안 모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록 1〉 북한 이주 청소년 배경정보 설문지

이름:	면담장소:
면담기간:	나이:
성별: 남 / 여	학력(학년):
북한 거주지:	
남한 거주지:	
제3국 거주기간:	남한 거주기간: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이 온 가족의 여부</li> <li>• 남한에 살면서 걱정되는 부분</li> <li>• 남한에 오기 전에 남한어를 배운 경험 여부</li> <li>• 남한어에서 가장 어려운부분</li> </ul>	

## 〈부록 2〉 관용어 목록

관용어 목록		
1	내 코가 석자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2	발이 넓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3	바가지를 쓰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4	손을 보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5	제 눈에 안경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6	낙동강 오리알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7	간이 붓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8	머리가 굽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9	귀를 주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0	다리품을 팔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1	삼천포로 빠지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2	코가 빠지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3	날개가 돌치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4	어깨가 무겁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5	애를 먹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6	손이 맵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7	눈에 불을 쬐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8	허리를 잡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19	걸음이 가볍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20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21	국수를 먹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22	담을 쌓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23	땀을 들이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24	한술 더 뜨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25	굴뚝같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26	파김치가 되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27	허리띠를 졸라 매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28	눈시울을 붉히다	신체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29	한턱을 내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30	바람을 맞다	일상 명칭이 포함된 관용어

## Features of North Korean Teen-age Refugees' Understanding of Idioms

Eun-Young Yeo\*, Hwa-Soo Kim\*\*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asks of understanding idioms, response time of responding to idioms, and error types of understanding of idioms between teenage North Korean refugees (NKTRs) and South Korean teenag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y to find some features of NKTR's understanding of idioms.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20 teenagers in total. 10 NKTRs who attended an alternative school for NKTRs in Seoul and 10 South Korean teenagers who attended G Practical Music Educational Institute of an academic high school, located in Gimhae, Gyeongnam. Research materials were a total of 30 questions. 15 questions consisted of idioms involving body parts and the other 15 questions consisted of idioms involving terms of daily life. Each question consisted of 3 figures.

The results are following.

South Korean teenagers had a significantly higher understanding of idioms than NKTRs. In response time to idiom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KTR and SK teenagers.

When NKTRs were divided into groups of over 24 months in SK and under 24 months in SK,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understanding idioms statistically between the two groups.

In response time to idioms, when the subjects were divided as abov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f NKTRs. when NKTR and SK teenagers were compared, NKTRs made more errors con-

---

\* Center For Health Development Support ZELKOVA, Speech & Language Pathology, tnffkaal@hanmail.net

\*\* Daegu University, Speech & Language Pathology, Whasoolang@hanmail.net(corresponding author)

sidering idioms literally and especially in the idioms involving body parts they made this error.

In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find some features of the understanding of the idioms by NKTRs. It is expected to use this study for helpful materials, to enrich the vocabulary of NKTRs through understanding idioms correctly, and to help them adapt to the society of South Korea as good social communicators.

**Keywords**\_North Korean refugees, an idiom, response time to idioms